

앞서가는 충남여성의 길잡이

충남여성

2004 겨울 특권 제21호



Winter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 02** 1. **논단**
_ 가정과 경제활동 양립정책을 위한 제언 / 이해경
- 05** 2. **기획탐방**
_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
- 06** 3. **정책제안**
_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노인복지정책 비교 연구 / 황창연
- 12** 4. **지역문화 찾기**
_ 만세보령의 기가 담겨있는 곳. 성주사지 / 성진모
- 14** 5. **함께하는 생각**
_ 천사들의 언어 / 우순복
_ 겨울비 / 진명희
_ 겨울 냄새 짙은 낙엽을 보며 / 한은애
_ 인내심과 지혜로운 삶의 방식 / 한병래
- 21** 6. **알아봅시다**
_ 충남도, 초등학교 겨울 '영어체험캠프' 오픈
- 22** 7. **충남 지역 여성소모임을 찾아서**
_ 천안 '꿈을 여는 사람들' / 이영세
- 26** 8. **알림**
_ 본원소식 / 여성계소식
- 32** 9. **함께하는 이야기**
_ 동료직원이 자주 성희롱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 34** 10. **개원이후 사업실적**



가정과 경제활동 양립정책을 위한 제언

- 가족친화정책의 자리매김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이혜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여성의 저출산과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1.17로 세계최하위를 기록하는 저출산율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사회전체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의 급증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최근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와 독립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 26.8%에 불과하던 것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8년 50.3%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OECD국가들 중 최저수준으로 평가된다.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가 높아지고, 고학력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먼저 여성의 노동권 제약은 크게 보았을 때 여성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이어져 사회적 관계의 고립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는 전체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매킨지 보고서(경제성장률과 소득수준의 향상을 위해 2005년까지 300만개의 순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고학력의 인력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와 EU의 최근 동향에서(3%의 경제성장률 지속하기 위해 2010년까지의 취업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핵심은 여성과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의 확대)에서 설득력 있게 반영되고 있다.

결국 현재 우리사회는 출산의 장려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가족의 기능 또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출산과 양육의 기능이 가족의 고유기능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사회적 기능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할 기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가사와 직장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재생산 노동과 노동시장에서의 생산노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아동보육서비스,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가 가정과 일을 양립하기 위한 가족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양성 간에 나타나는 차별적인 삶의 형태가 민간의 자체적 노력만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양성간의 차별적 삶의 상태가 인간존엄성에 호소되는 근본적 문제로 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적극적 가족친화(family-friendly)정책이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 및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노동시장에 남아 활발히 일을 해야 하는 연령대의 여성들이 결혼이나 육아 등 가정적 책임과 일을 함께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현실에 대해 산전, 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다양한 휴가시스템과 직장보육시설 등을 확립하여 노동의 단절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일-가정의 양립과 관련한 정책적 개입의 초기부터 양육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남녀간 양육분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해왔을 뿐 아니라 법적 측면에서 강력한 양립정책의 집행을 보여 왔다. 스웨덴의 소위 '아버지의 달'(daddy's month)로 불리는 남성의 육아휴직제도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1995

년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12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중 1개월은 의무적으로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혜택이 자동 박탈되는 제도이다. 이는 육아와 관련된 성별화된 이데올로기를 불식시키고 남녀간 공동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을 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율을 괄목할만하게 성장시킨 결과를 보였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남녀에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부분적이거나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고, 많은 기업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육아휴직 후의 업무 단절과 승진기회 등의 차별,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실재하는 제도의 활용에 있어 효율적 활용이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그에 비해 육아휴직기간의 적용에 있어 성별화된 분리를 없애는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휴직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남녀의 육아책임에 대한 공평한 분배를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산전산후휴가를 현실화하는 등 보육의 사회화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하는 과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리를 통해 여성의 양육책임을 고정화하고, 남성의 권리에 파생하는 의존적 존재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지속되는 한 궁극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의 바람직한 자리매김은 어려울 것이다. 기본

적으로 일-가정을 남녀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사회적 인식,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과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이제는 새로운 인간적 삶의 가능성과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제 가족친화정책은 여성중심의 친화정책이 아니라 가족성원, 즉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사회권의 보장을 제공하는 사회친화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보장해 주는 것이 여성 개인의 욕구 때문이 아니라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적 욕구이며, 차별과 억압의 계층 존재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다. 여성친화정책이 곧, 가족친화정책이며, 동시에 사회적 친화정책임을 인식하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회장 박연규)는 ‘주부의 사회성 개발’ ‘봉사정신의 함양’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 체득·실천을 목표로 1971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충남 공주시 교동 122번지 시청별관에 사무소를 두고 16개 시군지회 1,28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단체이며 또한 재정경제부에 소비자단체로 등록되어있고 2000년 충청남도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여 NGO 단체로 발전해가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주부교실 강좌, 특수교실, 주부대학등 주부들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상담실 운영 및 각종 조사활동을 통한 소비생활에 관한 정보제공, 깨끗한 환경가꾸기운동, 에너지절약운동, 청소년보호운동, 사회환경개선 등 밝고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충남사랑의 일환으로 “충남사랑 가족동요 부르기 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기의 정서를 찾아주고 어린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정서를 키워줌으로써 우리의 동요를 보급하고 나아가 가족과 함께 하는 동요 부르기를 통해 가족의 결속과 가족의 화합을 통한 효 실천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행복한 부부 만들기를 위한 부부성장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사업으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도

모하고 건전소비실천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매년 건전소비실천 다짐대회 및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교육실시, 유통업자와의 간담회를 전개하고 지회별로 연중 물가안정 캠페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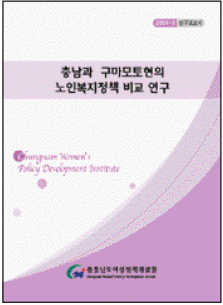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는 10개 시·군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식료품·피복제품·생활용품·차량 및 승용물·보건위생용품·세탁물·문화용품·운수·통신·금융·보험·기계·임대차·토지·건물·문화·오락·의료 등의 사항들에 관하여 접수 처리를 통해 피해 구제를 해드리고 있으며,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 환경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식품·공산품 유통 감시 활동 그리고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를 통한 물가 조사활동 및 축산물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로서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쌀 재고량 누적의 심각성을 범국민적으로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소·농이 함께하는 쌀소비 촉진운동, 친환경 농업과 식생활의 안전성확보운동, 농촌여성과 함께하는 주부농가지킴이사업을 전개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갈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환경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강을 주제로 한 그림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를 통해 금강살리기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노인복지정책 비교 연구

- 향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



연구자 _황 창 연(교육팀장)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추세는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으로 인해 세대간의 전쟁으로까지 논의되면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전략이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미래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충남은 노인인구비율이 12.7%로 타지역보다 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되어 있고(전국 평균 8.1%), 지역적으로 농촌의 점유율이 높아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소외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 선진국인 일본의 사례 특히 인구규모 및 산업 환경이 유사하며 충남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구마모토현의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머지 않아 도입하게 될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미 이와 같은 노인요양보험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구마모토현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인구학적 특성과 노인의 생활특성을 비교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인구구성비와 노년부양비, 노인인구변화추이와 평균수명을 살펴보고, 노인의 생활특성으로는 세대상황, 주거상황, 건강상황, 사회활동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충남과 구마모토현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비교하였다.

여기에서는 먼저 한국과 일본의 일반적인 노인복지정책추진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사업을 소득보장, 건강보장, 여가활동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노인복지정책 비교를 통해 충남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분석에 의한 비교분석방법으로 구체적으로는 첫째, 한일노인복지정책 관련 자료, 한일노인복지세미나, 보고서 등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분석틀과 연구방향을 정립하고 둘째,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생활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기존조사결과와 통계청의 각종 노인통계 자료, 구마모토현의 고령자 통계를 분석하고 셋째, 충남과 일본 구마모토현의 고령자 보건복지사업 분석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노인복지사업계획과 본원과 충청남도 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일 여성노인복지정책 포럼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구마모토현의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노인복지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그 자료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1)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노인인구 및 생활특성 비교 결과

충남과 구마모토현은 토지면적(충남 : 8,597.9km², 구마모토 : 7,403 km²) 인구규모(충남 : 191만 명, 구마모토 : 185만명), 산업특성(충남,구마모토 : 자국내의 농어업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세대수(충남 : 69만세대, 구마모토 : 64만세대) 등에 있어서도 유사한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서구에 비해 부모 부양에 대한 자식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하는 유교적인 문화권내에 있다는 점, 최근 들어 노인 단독세대와 노인부부 세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통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노인인구 및 생활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① **인구고령화율** : 2003년 현재 충남은 고령화율이 12.7%이고 구마모토현은 22.8%로 고령화율이 약 10%정도 더 높고, 이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률도 구마모토현이 약 18% 정도 더 높다.

② **평균수명** : 구마모토현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78.3세, 여성이 85.3세로 충남에 비해 약 6세 정도 더 많고, 일본 전체의 평균수명보다 0.8세 정도 더 높아, 충남이 우리나라 평균수명보다 1.2세 더 낮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평균수명은 일반적으로 국민 생활수준 및 보건의료수준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충남이 우리나라 두 번째의 노인도이기는 하지만 생활환경 및 보건의료수준에 있어 전국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③ **세대구성** : 충남은 전체세대 중 65세 이상 친족이 있는 세대가 31.9%, 구마모토현은 40.2%로 고령화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고령자 단독 세대 비율이 충남에 비해 4%정도 더 높고, 노인부부세대의 비율은 충남이 9.2% 더 높았다. 이는 구마모토현은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아진다. 이렇게 구마모토현은 충남에 비해 고령화율 및 평균수명이 높고 노인단독세대의 비율이 높아 건강상태가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관적인 인식 수준에 있어서는 더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사회활동** : 충남은 2002년 현재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40.7%로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인 30.7%보다 약 10%나 더 높는데 비해 구마모토현은 2000년 국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취업률이 20.0%로 일본 전체의 평균 취업률 22.2%보다 낮아 전국 38위 수준이다. 취업율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의미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 있으나 구마모토현의 경우 1995년 조사결과에서도 21.2%로 일본 전국 평균에 비해 노인취업율이 4%이상 낮은 점을 볼 때, 충남에 비해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노인인구 및 생활특성을 요약하면** 구마모토현은 충남에 비해 고령화율 및 노년부양비가 훨씬 높고,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평균수명 및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더 양호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노인복지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노인복지 정책 비교 결과

한국 충남의 노인복지정책은 사업영역(소득보장, 건강보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일



본 구마모토현의 노인복지정책은 개호보험제도를 제외하고는 노인복지정책을 언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로 체제가 다른 지자체의 노인복지정책을 비교 분석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와같이 접근 체제상의 차이가 있지만 정책비교를 시도한다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① **소득보장정책** :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제도로서 일본 고령자의 평균소득은 60% 이상이 공적 연금이며,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고령자세대도 전체 고령자세대의 60%에 가까운데 비해, 한국은 국민연금제도의 낮은 도입으로 아직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층의 국민연금 가입율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충남은 노인복지예산의 57.9%가 부조적 경비를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사업에 지출되고 있는 반면 구마모토현의 경우 예산의 대부분이 건강보장과 관련되어 집행되고 있다.

② **건강보장정책** : 두 지자체간의 노인복지정책 중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충남의 노인 건강보장관련 사업은 크게 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노인건강진단, 급식지원 및 영양개선 부분으로 요약되며 사업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와 복지정책과에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구마모토현 고령자보건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건강보장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시책사업이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요원호(要援護)**고령자는 개호보험을 중심으로, 요원호상태가 될 위험이 높은 고령자는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건강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삶의 보람만들기, 건강만들기를 중심으로 시책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개호보험제도가 중심이 되고 있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이상인 지역의 모든 노인들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노인의료·보건·복지 관련사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여가생활지원정책**은 소득보장 및 건강보장관련 정책과는 달리 충남과 구마모토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대체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구마모토현의 경우 각 시정촌 노인클럽마다 특색 있는 독자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4. 정책 제언

이상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노인생활특성 및 노인복지정책의 비교를 바탕으로 충남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첫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노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대상자의 유형을 건강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하고 일상생활에 자립적인 노인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건강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계획 중인 노인요양보장 제도의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노인 보건·의료·복지정책의 종합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고령자가 살고 싶은 지역·장소에서 쾌적하고 안심·안전하게 건강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정 및 제도정비뿐만 아니라 주민, 기업, 단체 등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과 역할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구마모토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복지서비스제공체계의 구축은 장차 충남의 노인복지정책 방향설정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앞으로 충남의 노인복지정책사업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 노인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본 방향 및 관점의 수립이 요구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책의 구체적인 세부항목과 달성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정책추진과제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충남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다음은 구마모토현 노인복지사업에 비추어 지방정부차원에서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세부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 실버헬퍼 육성 지원

건강한 노인들에게 케어교육을 실시하여 실버헬퍼의 육성을 지원하고, 재택서비스파견사업을 실시하여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한다. 이는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 지원방안의 일환이 되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단체,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면 노인들이 서로를 지원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주택개조사업 지원

가급적 자택에서의 자립생활이 오래도록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활거주환경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하여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의료서비스지원 및 복지주거환경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 외출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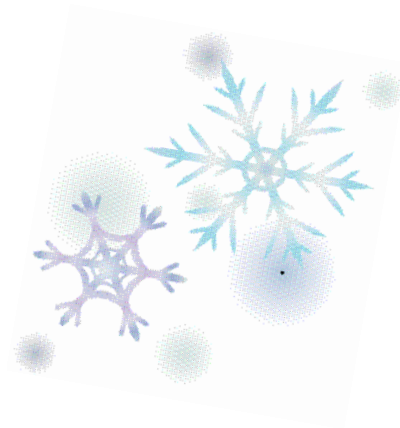
현재 노인들의 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정류소를 설치하여 공공시설, 시장, 상점,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연결하는 복지차량을 배치하여 일주일에 1회 등 정기적으로 노인외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노인복지용구대여 및 구입비 지원

경증노인의 자립지원과 수발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서 노인복지용구대여 및 구입비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용구의 보급과 활용에 힘쓸 필요가 있다.

■ 근력, 트레이닝교실 운영 지원

노인들의 개별건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간단한 운동기구 보급과 건강지도를 위한 지역리더를 육성하여 파견하도록 지원한다.



만세보령의 기가 담겨있는 곳. 성주사지

_성진모(보령로컬가이드)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주변 산세 또한 절경이라 한 번 둘러보면 어느 지역보다 매력적인 곳이다. 그 중 내가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게 되는 곳이 성주사지이다. 날이 화창할 때 들르면 빈터에 서 있는 비석과 탑들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고, 비가 오는 날 둘러보면 대선사의 정신과 기운이 느껴지는 듯하며, 눈이 쌓인 그 곳을 둘러보자면 한없이 마음이 넓어지는 듯한 곳이다.

성주사지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에 있는 성주산의 동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능선의 말단부에 동서를 장축으로 동향 사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북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이 사찰은 백제의 법왕 때에 초창된 사찰로서 처음에는 오합사라 부르다가 신라 문성왕 때 당나라에서 돌아온 대낭해화상이 가람을 크게 중창하면서 성주사라 하였다. 성주사는 선문구산의 하나인 대가람이었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 곳에는 최치원의 유명한 사산비의 하나인 대낭해화상 백월보광탑비(국보 제 8호)와 석등, 오층석탑(보물 제 19호), 석불입상, 그리고 삼층석탑 3기(서삼층석탑은 보물 제 47호, 중앙삼층석탑은 보물 제 20호)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1968년과 1974년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을 실시하여 금당지, 삼천불전지, 회랑지, 중문지 등의 건물지가 드러났다. 처음 만든 당시의 가람은 핵심시설인 중문, 탑, 금당 등은 남북을 축으로 하여 남쪽에 중문, 그리고 탑, 금당 순으로 일직선상에 배치하고 중문에서 금당에 이어지는 회랑을 돌린 1탑 1금당식의 가람 배치를 기본으로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3탑이 있다함은 3금당을 갖추었으리라고 짐작될 수 있어 가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이라 현재 성주사지로 알려지고 있는 지역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조사 발굴 과정에서 통일 신라 시대의 소조불도와 백제·통일 신라·고려시대의 외당류가 출토되었으니 그 기원이 실로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주사지에 있는 대낭해화상 무염(無染)대사의 탑비는 전체높이 4.55m, 비신높이 263cm, 너비 155cm, 두께 43cm로 장대한 크기가 가까이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엄마저 느껴진다. 귀부의 일부에 손상이 있을 뿐 거의 완전한 상태로 귀부의 구름무늬나 이수, 4면의 운룡무늬는 생동감이 있으나 이수 앞면 중앙에 마련한 제액(題額)은 마멸되어 판독이 어렵다.

비문에는 대남혜화상의 행적이 5,000여 자의 장문으로 적혀 있는데, 지은이는 최치원, 글씨는 최치원의 종제인 집사시랑 최인연이 썼다. 비문에는 건립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대남혜화상이 입적한 2년 뒤에 부도를 쌓았다는 비문으로 보아 이 당시 비문이 작성, 건립되었다고 짐작된다. 최치원이 지은 사산비명(四山碑銘) 중 하나로 유명한 이 비문은 신라의 골품과 고어를 연구하는 자료로서 귀중하다. 글씨는 자경 2.5cm의 해서로 최치원의 필의(筆意)를 지닌 구양통류(歐陽通類)에 속한다.

드넓고 푸른 바다를 사랑하여 보령시를 찾는 이들이 보령시와 웅천면 사이에 위치한 성주면 소재지 근처에 있는 이곳에 한 번쯤 들러서 대선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조잡한 글을 맺는다.



성주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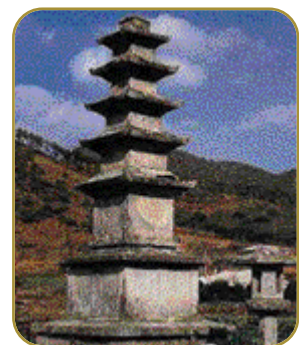
대남혜화상백일보광탑비



성주사지 서삼층석탑



성주사지 중앙삼층석탑



성주사지 오층석탑

* 사진과 내용의 일부를 이곳에서 얻어왔습니다.(<http://user.chollian.net/~kdhgad>)



천사들의 언어

_우순복 (청양 주부모니터)

일주일째다

지난주 월요일 원고 청탁을 받은 후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겁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단번에 사양했어야지. 후회는 하고 있지만 원고지 앞에서 마음 조이는 지금의 내가 참 좋다. 이랬다 저랬다 어지럽게 살아도 지금의 내가 참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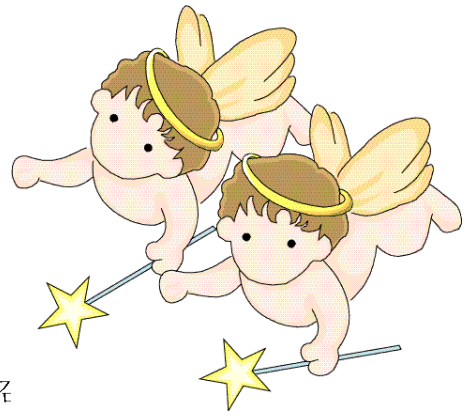
한해의 끄트머리에서 스스로가 몇 백자의 원고 때문에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찬란하다. 마음이 이처럼 버거운 것은 마감에 대한 약속 때문인지 아님 한해를 마무리 하는 자락에서 있음인지.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2005년에 가까운 달력으로 향할수록 여기저기서 감사와 사랑의 인사들이 넘쳐난다.

메일을 열어보면 새해인사가 대부분이고 휴대전화에 문자 소식이 들어있어 열어 보면 역시 가는 해와 오는 해에 대한 겸손과 희망의 인사가 들어있다. 그들의 언어는 천사들만이 사용하는 단어들로 가득 하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한 달, 한 해가 모두 이처럼 천사의 언어만을 사용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됐으며 사회가 됐으며 국가가 되었을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나부터라도 감사와 겸손으로 시간을 보내고 맞이하는 천사가 되지 뭐.

2004년의 나는 정말 아름다웠어. 내가 서 있는 자리마다 꽃 보다 더한 아름다움이 있었잖아, 그래 그럼 된 거야. 내 한 해는 특별히 쉬운 일도 없었지만 어려운 일도 없었음을 먼저 감사하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진 않았지만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은 모두 만났으니 이것도 감사하자. 위안을 받는 자리에 있기 보단 위로 하는 자리에 자주 있었음도 감사하자.

길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했음도 잊지 말자. 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새해엔 꼭 이뤄질 것이니 미리 감사해두자. 내 안에서 찾은 작은 감사로 인해 지금의 난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만으로도 내 행복은 차고도 넘쳐난다.

조용한 시간들 속에서 올 한해는 설렘을 전해준 특별한 친구가 있어 감사하다. 얼마 전 미국에 8개월간 다녀온 친구인데 그녀의 남편인 목사님이 70대 노부부의 재혼 주례를 맡게 됐다. 그들은 70이 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인데 아주 오래전 50여 년 전에 일본 동경대 유학시절에 1년간 잠깐 만났던 사이였다. 그 후 헤어져 서로의 삶을 충실히 살아오다가 할아버지의 순애보로 미국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재혼까지 하게 됐다. 한편의 시처럼 인생의 단편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성숙한 자아로 만난 그들 부부의 새 삶은 진실과 감사함으로 늘 충만할 것이다.

현재는 선물이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선물은 축복이다. 선물 앞에 선 겸손해야 하며 늘 감사해야 한다. 어느 어른들은 자신이 나이 들어간 부끄러워하거나 나이 드는 것을 슬퍼한다.

20대의 자신이 50대가 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나이가 들면 자아가 사라지는 것인 듯 무척 예민해 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내가 10년만 젊었어도”다. 그들은 자신의 주어진 현재의 세월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도대체 10년만 젊으면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앞으로라도 ‘10년 전’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면 선물로 받은 현재에 감사 하고 감사한 만큼 최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루려 노력하면 된다.

만약 이뤄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조금해하지 말고 다음으로 비워두는 여유로움도 멋지다. 왜냐면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으며 그 인생의 주역 배우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이에 맞게 우아하거나 심오하지 않지만 지금의 내 나이가 참 좋다. 10년 전의 내 나이에 도 날개를 달고 싶도록 좋았듯이 지금도 내 나이를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 내 나이는 38세예요, 내 나이가 참 맘에 들지요. 내 나이를 자랑하고 싶으니 함께 축하해주세요. 내년엔 39세가 되고요, 10년 후엔 49세가 되거든요. 난 19살이나 29살 때도 신이 났지만 69세가 되도 늘 신이 날 거예요. 왜냐면 난 내게 정해진 세월의 주인공이며 언제나 몇 년을 앞서 세월을 기다리거든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나이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이들보다 더 찬란한 삶을 엮어가진 않지만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지 여러분들도 격려해 주세요.”

지루하게 흰 종이만 바라보다가 띄엄띄엄 쓰기 시작 할 땐 언제 원고지를 다 채우나 힘겨웠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쓴 것도 감사의 조건이다.

2005년엔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 앞에 내가 먼저 감사하고 싶다. 중요한 것은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것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여쁜 장미꽃도 감사하고 따가운 장미의 가시도 감사하고 밝음도 감사하고 어둠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고 슬픔도 감사하고 미련함도 감사하고 깨우침도 감사하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시간을 보내면 나는 어느새 천사를 닮은 얼굴을 하고 있겠지.

올해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이 예년에 비해 많아 졌다고 한다. 그만큼 자신의 위치에 감사한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도움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고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감사한 그들의 온정이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시간을 향해 우리는 충분히 겸손과 감사를 가꿀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며 이어 갈 수 있으리라.

겨울비

_진명희(예산 주부모니터)

잊혀지는 것들이었다
이파리 다 떨어진 은행나무 줄기에
무더기로 피어난
된서리 한 줌
밤새워 잠 한 숨 이루지 못한 탓일까
하얗게 달라붙어 제 몸을 휘감았다
찬바람이 불어왔다
다 잊혀졌다고 생각한 것들이
빈 하늘에 등등
무겁게 떠 있었다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은행나무 줄기가
촉촉히 젖어 들었다
아, 잊혀지는 것들이
그렇게 내 몸에 젖어들었다

_약력

- _ [조선문학] 신인상 수상으로 문단 데뷔
- _ 제5회 충남예술문화상 및 제11회 충남문학 작품상 수상
- _ 한국예총 예산 부지부장 및 한국문인협회 예산부지부장

겨울 냄새 집은 낙엽을 보며

_한은애(천안 주부모니터)

창이 뿌옇게 흐려진다. 어느덧 가을을 보내고 겨울 문턱을 넘어선 듯 하다.

고3 수험생 부모 노릇으로 밤을 낮 삼고, 입시 지옥문을 향해 신경을 곤두세웠던 지난 1년. 한 계단 더 밟아 올라간다는 것이 지독히도 매웠나보다.

소나기 몇 번 내리고, 안개 속 정신없이 내달린, 그리고 머리 정수리부터 겨울보다 더 먼저 찾아 온 흰머리까지. 낳아서 정성들여 길러주신 부모님을 이제는 빌 낫이 생겼다고나 할까.

작은 화단에 씨를 뿌렸다.

알맞은 양의 물을 주자 파릇한 새싹이 돌아났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라더니 깨알만한 열매가 맺혔다. 신기했다.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 하루 종일을 들여다봐도 눈이 짓무르지 않았다. 만지기도 아까웠다. 만지면 떨어질까, 혹 불면 날아갈까 정말 조심스럽게 사랑을 주었다. 때론 세찬 비바람에 목이 꺾이기도, 양갈진 눈보라에 몸을 구부리기도 했지만, 이내 해만 보면 고개를 하늘로 향했다.

세찬 비바람쯤이야, 양갈진 눈보라쯤이야 힘들지 않았다. 해는 비바람보다, 눈보라보다 훨씬 더 자주 뻗었으니까. 그렇게 열매는 익어갔고, 때론 터지기도 했다. 너무 익어버려서…….

김장을 끝내고 몸은 겨울준비를 마친 어느 날. 예전보다 훨씬 늦은 김장 탓인가, 마음이 시러왔다. 연로하신 부모님 얼굴도 작년과 달라보였고, 주머니도 유난히 가벼웠다. '냉정한 경기 체감온도는 어김없이 우리집에도 찾아왔나보다' 라고만 생각했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능 시험 잘 보았냐'는 전화를 받고서야 내가 겨울 저 편에 있었다.

불혹을 넘긴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라고 몇 번 들은 기억은 있지만, 참으로 이상했다. 이제야 부모 마음을 알겠고, 이제야 남편 속을 알 것만 같았다. 꽃 한 송이 향기 찾을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 온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간다.

과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갑자기 시누이가 보고 싶어 전화 다이얼을 누른다. 한참 수다를 떨고 나서야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싶다. 조금씩 주책스러워지는 중이다.

봄, 여름, 가을을 감각 없이 등에 땀피 나도록 보냈는데, 계절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겨울을 맞으란다. 그냥 나이를 주워 주머니에 구기란다. 하마터면 슬퍼서 그냥 울어버릴 뻔했다. 그러나 현실은 내 앞에 곳곳이 서 있고,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르고 있다. 정신없이 지나친 계절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면서…….

아이는 목표한 대학에 합격을 했다. 제 기분을 주체할 겨를이 없어서 이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 그 날 저녁 머리를 감는데 한웅큼의 머리카락이 빠졌다. 한참을 머리 빗는 시늉을 하며 겨울 앞에서 있었다. 몸이 떨리는 것이 분명 겨울은 겨울인가본데, 난 가슴에 떨어지는 낙엽을 꼭 쥐고 있다. 내 나이자락엔 이제 작은 아이가 걸려있는 것이다.

출·퇴근길에 미리 보아 둔 파릇한 색깔이 떠오른다. -아마 이쯤이면 부지런한 냉이가 나온 것일거야- 이번 주말엔 필히 시간을 내서 냉이를 캐러 갈 것이다. 찬 겨울을 새로운 계절로 생각하고 세상을 즐기는 법을 물을 것이다. 마음속에 간혀있는 낙엽을 주고 올 생각이다.

내게 겨울은 새로운 봄으로 초대 받았다. 아마 사계절 내내 봄일지도 모른다는 철없는 기대를 이미 침침해 진 동공 안으로 비밀스럽게 띄워본다.

생긴 흰머리, 눈가에 자욱한 주름, 미리 찾아 온 원시(遠視) 모두 당당하게 받아들일 생각이다. 푸른 옷 모두 벗고 혹독한 추위에 견뎌가며 새 봄에 띄울 새순을 준비하는 상수리나무처럼 말이다.

-후두둑- 소나기다.

‘아니 한겨울에 웬 소나기람?’ 겨울 냄새 짙은 낙엽이 하늘 저 끝에서부터 필력거리며 쏟아진다. 겨울비와 함께…….



인내심과 지혜로운 삶의 방식

_한병래(홍성 주부모니터)

인생을 살다보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항상 우리 마음속을 수시로 오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사이에도 아침에 천국 같던 기분이 저녁이 되기도 전 어느 순간에 지옥 같은 기분의 시간으로 변하여 자기 감정과 맞서 싸우거나 비틀거리게 되는 일상을 맞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이든 간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치게 마련일텐데, 항상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나, 항상 못마땅해 화난 것 같은 모습으로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 모두에게 그런 고난은 삶의 영역 곳곳에 자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의 일상에서도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외부 환경은 중립적인데 똑같은 상황이면서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처한 상황에 나름대로 대응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일들을 감정에 따라 당황한 행동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앞세우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수롭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자신에게 닥치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여 필요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희생자가 될 수도 있어 우리의 삶의 질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에 맞서 다급하게 전전긍긍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자세로 참고 기다리며 시간을 두고 침착하게 행동해 보도록 하자. 부드럽고 차분하게 수용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은 한 순간이고 서서히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침울한 기분을 잘도 참아냈다는 희열과 함께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의 행동에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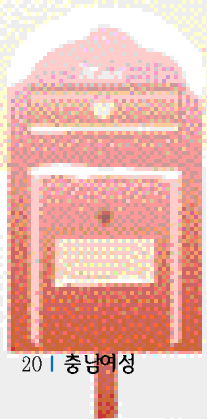
사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행복의 정도는 환경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슬기롭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생각의 본질을 바꾸면 긍정적 감정의 상태와 여유 있는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세상에 훌륭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좋은 환경일 수만은 없었는데도 자기 스스로 원하는 환경으로 바꾸거나 만들어 낸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항상 그대로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

자신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해결을 찾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충남도, 초등학생 겨울 '영어체험캠프' 오픈

- 지역교육청에서 엄선한 초등학생 3~5학년 50명 대상, 3주간 합숙 -
- 원어민 강사등과 생활/실용 영어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충청남도는 지난 1월 10일 여성 정책개발원에서 유덕준 행정부지사, 이재우 여성정책개발원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 초등 「겨울 영어체험 캠프」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오픈한 영어체험 캠프는 도내 초등학생들의 영어구사 능력과 국제 감각 등을 배양하기 위하여 마련한 프로그램이자 심지사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입교생들은 지역교육청을 통해 초등학생 ~5학년생 50명을 선발해, 영어환경으로 조성된 캠프장에서 뉴질랜드 원어민강사·초등영어교사 등과 3주간 합숙하며, 영어로만 생각하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용영어를 익히게 된다.

특히, 이번「영어체험 캠프」는 ▲Class당(학생 10명) 원어민 강사 1명, 원어민자원봉사자 1명, 국내 지도교사 1명 등 3명씩을 투입, 다양한 발음 경험과 밀착교육으로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게임, 만들기 실습 등 체험위주의 수업진행으로 생활영어를 자연스럽게 체득케 하고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민속놀이 등을 소재로 한 Club활동을 통해 양국간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활동내용을 수료식 직전 Performance로 시연케 하여 성취감을 부여하는 등 타 시·도 운영 영어캠프와 차별화했다.

이밖에도, 만일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인근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철저한 Team활동(Team 당 교사1명, 학생 5명)으로 협동심배양 등 인성교육도 병행한다.

한편,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번 영어캠프를 시작으로, 영어체험마을 조성, 영어교육특구 지정 등 지속적인 영어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코너에서는 충남지역의 여성소모임을 찾아 기획연재를 하고자 한다. 지역여성소모임은 고립적이며 의존적인 여성의 자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간다면 가부장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여성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적 틀로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 편집자 주 -

천안 '꿈을 여는 사람들'

_이 영 세(정책연구실장)

천안의 여성소모임 '꿈을 여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모임이다.

이제 홈페이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현대사회의 사랑방이다. 옛날 동네사람들이 언제 나 마음 놓고 드나들었던 사랑방처럼, 누구나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미는 일을 하는 소모임이 있다. 천안 여성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무한히 넓힐 수 있는 인터넷세계에서 조용히, 성실하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꿈을 열어가고 있다.

소모임의 배경

'꿈을 여는 사람들'은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웹디자인반을 공부했던 교육생들이 만든 소모임이다. 처음에는 12명이 시작하였는데 9명이 수료했고 그 중 6명이 모여 공부를 더 해보자고 모임을 만들었다. 그동안 지도를 하였던 정진화선생님의 격려와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의 후원이 큰 힘이 되어 지금까지 3년 이상 매주 토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회원들은 웹디자인 교육을 시작할 때만 해도 큰 기대나 거창한 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두사람만 빼고는 컴퓨터는 겨우 워드, 엑셀 정도만 알았던 사람들이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서 신청하였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플래쉬, 드림위버, 포토샵, 나모에디터 등의 과목을 3개월간 어렵게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었고 자신감이 붙었지만 웹디자이너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보 수준이었다. 그래서 계속 만나서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더 익히고자 모임을 만들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 모르는 것도 물어 보고 서로 가르쳐 주면 기술을 익히기가 훨씬 쉬웠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문만 있다면 돈도 벌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새로 생겼다.

교육이 끝난 후 바로 모임을 갖고 소모임 이름을 ‘꿈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지었고 명함도 만들었다. 회비도 내고 모임 규칙도 만들고 서로 공부하며 지금까지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소모임의 조직

모임은 팀장 1인, 총무 1인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팀장 김희정씨는 소모임의 운영자이며, 진행자의 역할을 하되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구성원들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 30대 주부들로써 자녀들이 돌이 지난 사람들로부터 초등학생까지 있다. 비슷한 연령대의 주부들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이나 자녀문제 등 화제는 늘 다양하고 즐겁다.

매주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일하는 사람도 있어 힘들지만 팀장이나 총무, 그리고 다른 회원들이 모두 열심히 맡은 일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모임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회원들은 큰 돈을 번다고 보다는 친목을 바탕으로 하되 공부한 내용을 매주 만나서 의논하고 토론함으로써 기술을 증진하고 서로 느슨하지 않도록 격려한다. 교육의 후속 모임이 지금까지 3년 이상 지속된 것은 이처럼 모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회원 호미숙씨의 경우는 컴퓨터를 전혀 모른 상태로 웹디자인반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 가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초급, 중급 단계를 건너뛰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 웹디자인반에서 강의를 해 주셨던 정진화 선생님이 회원들을 위해 매주 참석하여 홈페이지 제작을 하면서 수시로 부딪치는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소모임의 활동

‘꿈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은 초보자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총 4개의 홈페이지를 주문 받아 제작한 경험이 있다.

- ▶ 하늘 땅 어린이집 (제작기간 : 2002년 1월 15일 ~ 2002년 2월 30일)
- ▶ 사랑성실교회 (제작기간 : 2002년 4월 중순 ~ 2002년 5월 30일)
- ▶ 체대 입시학원(제작기간 : 2002년 6월 28일 ~ 2002년 8월 15일)
- ▶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제작기간 : 2002년 9월 중순 ~ 2002년 10월)
- ▶ 신가초등학교 (제작기간 : 2004년 4월 ~ 2004년 6월)

한번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기간은 보통 두 달 정도 걸린다. 이때는 너나없이 날마다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면서 머리를 짜낸다. 회원마다 소질이나 개성이 달라서 제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잘 아는 사람, 디자인 감각이 있는 사람,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 음악성이 있는 사람 등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나누어 맡아서 함께 제작에 참여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회원들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도 자원으로 끌어 들여 이용한다.

첫모임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땅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홈페이지 의뢰가 왔다. 처음이라 자신들이 아직은 미숙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하고 실습의 기회도 된다는 의미에서 거의 비용과 상관없이 하늘땅어린이집의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이 때 모두들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였다. 그일로 인하여 많은 공부를 하였고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후로 유료 홈페이지 의뢰도 들어와서 제작을 하였다. 비록 적은 비용이었지만 배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여섯명이 모두 달려들어 제작하고 있다.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하나의 업무이지만 회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질과 개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미지 하나를 고를 때도 취향이나 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 정진화 선생님이 중재 역할을 하여서 합의를 본다. 모두 최상의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리고 2002년에는 YWCA에서 운영하는 강좌 중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공부반인 금빛반의 도우미로 일하고 정부통신인터넷반의 도우미로 활동도 한다. 그 외에도 타 교육장의 컴퓨터 인터넷 도우미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웹디자인반을 소개해 주고 기관에 협조요청을 해 주는 등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에게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제공해 주었다.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꿈을 여는 사람들 활동은 기관의 홍보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활동은 필수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개인 취미활동에서부터 기업홍보, 컨텐츠사업, DB구축,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의 영역이 확장되고 홈페이지 목적도 다양해지므로 21세기의 필수적인 도구로 되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 '꿈을 여는 사람들'은 개인용 및 기업용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널리 알리는 홍보로 제작과정부터 유지보수 또한 지속적인 관리를 맡아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제작하는 '꿈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평가 및 전망

홈페이지는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처음 나타내는 현관이라고 볼 수 있다. 출발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방문자가 편안하면서도 호감을 갖는 디자인과 아울러 충실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웹디자인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웹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기획된 스토리보드

(storybord)에 따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쾌적하게 화면을 그리고 디자인을 구상한다.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내용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내용이라도 화면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의 가치가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웹디자인은 학력이나 전공보다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여성의 상상력과 감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작업이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기업광고가 급증하고 있고, 개인 홈페이지 제작의 급증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꿈을 여는 사람들’이 모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던 큰 요인은 자발적인 강사의 헌신과 실제 홈페이지를 수주하여 제작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모임에서 의논하여 해결한다는 점이다.

‘꿈을 여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또 한번 웹디자인반 강좌가 있었다. 역시 그 기(期)도 후속모임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약 두 달 정도 있다가 해체되어 버렸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소속 회원들의 의지와 결속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와 비교해서 ‘꿈을 여는 사람들’에 속한 회원들과 팀장, 총무들이 서로 모임에 대한 헌신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모임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큰 힘은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들의 활동과 후속모임 또는 교육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었다는 점이다.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부에서 만든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와 링크된 사이트가 있지만 꿈을 여는 사람들 팀에서 만든 자체 홈페이지도 제작하였다. 모임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문을 맡기도 하고 후속교육도 알선해 준다.

현재 소모임 내부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거리가 많지 않은 것이다. 회원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정보도 열심히 나누지만 제작주문이 없어서 모임이 활기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열의와 노력에 비해 영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작의뢰가 적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제작할 기회가 적어서 빨리 속도가 진전되지 않는 것이다.

웹디자인은 많이 제작해 보아야 실습이 되고 자신만의 기술로 된다. 그래서 충남지역의 교회 주소를 입수하여 각 교회마다 안내문과 전단지도 돌렸다. 무료라라도 주문을 받아 제작하려고 했는데 한군데에서도 연락이 없어서 회원들은 몹시 실망을 했다. 정보산업이란 기술과 영업력이 합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요즈음 절감하고 있다.

그리고 힘들어서 제작해 준 홈페이지가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일 년 정도 지나면 폐쇄되어 버리는 것도 모임의 회원들을 맥 빠지게 한다. 홈페이지 내용을 자주 업데이트하여 찾는 사람에게 신선함을 주어야 사용자도 늘어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져 버리면 열심히 제작했던 회원들은 몹시 속이 상한다. 주문수요의 끊임없는 창출이 앞으로 회원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충남 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사업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본원 정책연구실에서는 지난 12월 20일(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본원 세미나실에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및 교수, 장애인 단체등 전문가 및 활동가를 모시고 「충남 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사업방향 모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충남지역 장애인복지관이 여성장애인사업을 목적에 맞게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워크숍에서는 ▶김성자(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의 “충남 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사업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고 ▶조성열(나사렛대학교)교수와 아홉명의 토론자들이 주제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사업방향 모색” 및 “여성장애인사업의 사업환경”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원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여성장애인 사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고자 마련된 행사”라고 말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워크숍 개최

본원 정책연구실에서는 지난 12월 23일(목) 오후2시부터 4시까지 본원 세미나실에서 관련전문가를 모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농림부에서 지원을 받아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계획 및 수행담당자들에게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자 마련하였다. 또한, 담당자들이 정책 업무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실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이영세(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의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임덕규(부안 여성농업인센터) 소장이 “후계농업인육성” 사례발표 ▶김영주(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이 “품목별 상설교육” 사례발표 ▶공선영(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이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례발표 ▶이영세(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이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 사례발표를 실시하였다.

이어 ▶신분주(청와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장 ▶서운주(충남도청 농정유통과)계장 ▶구미현(사회학박사) ▶김경희(대전여민회) 부회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원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농업인력육성정책 담당자에게 성인지적 관점의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농림부의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



침을 제공하고, 향후 농업인력육성정책 및 농업정책에 대한 성분석의 제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스텝(2명) 및 국내지도교사(5명),
김남순 교수

· 사회자 : 김종철 박사

2005 충남 겨울 초등 영어체험 캠프

- 참가 학생 /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일 정 : 12월 19일 오후 2시
- 장 소 : 대강당
- 참석자 : 학생 50명, 학부모 다수, 국내 지도교사 및 스텝
- 사회자 : 조지영

● 진행 프로그램

1. 학생인터뷰 및 등록 (김삼문 코디네이터, 박우영 교사, 국내 지도 교사 5명)
2. 개회
3. 국민의례
4. 원장인사
5. 영어캠프 개요
캠프장소 소개
프로그램 개요 소개 (커리큘럼, 스케줄, 일정, 반편성 등)
학부모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안내
영어캠프 교재 소개
6. 서약서 작성 (학생 및 학부모)
7. 학생/학부모, 지도교사와 함께
8. 자유로운 귀가

- 스텝 / 국내 교사 워크샵 -

- 일 시 : 2004. 12. 18(토) 14:00 ~ 19(일) 12:00(1박2일)
- 장 소 : 본원 세미나실
- 참석자 : 총 25명
개발원, 도청, 보육정보센터 관계자

● 진행 프로그램

<18일>

- 14:00 ~ 14:20 원장 인사
- 14:00 ~ 14:40 도 관계자 인사
- 14:40 ~ 15:00 영어캠프 개요 소개
- 15:00 ~ 15:50 충남 2005 겨울 영어캠프 사례 소개(스텝 박우영 교사)
- 15:50 ~ 16:00 휴식
- 16:00 ~ 16:50 영어교수학습 전략 (한남대 김남순 교수)
- 16:50 ~ 17:30 영어캠프의 성공적 운영 전략(정민환 교사)
- 스텝의 역할 및 학생 생활지도 중심
- 17:30 ~ 18:20 서울시 영어캠프 교수학습 전략 및 사례(권은경 교사)
- 18:20 ~ 19:00 저녁식사 및 영어캠프 환경 점검
- 19:00 ~ 20:00 영어캠프 환경 개선 및 조성 방안 토의
- 20:00 ~ 21:30 학생/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및 캠프 운영전략 회의

<19일>

- 08:00 ~ 08:30 아침식사
- 08:30 ~ 10:00 영어캠프 환경 보완 및 재점검
- 10:00 ~ 12:00 학생생활지도 방법 및 Team Activity 교수방법 (조지영 외 국내지도 교사 약간 명)



▶ 1월 6일 부터 치질없는 영어 캠프 운영을 위하여 교사 사전 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충남지역 여성평생교육협의체 회의 개최

- 11월 10일 모임, 도내 여성평생교육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강화 -

본원 정책연구실에서는 11월 10일 세미나실에서 충남지역여성평생교육협의회(위원장 : 이재우)를 개최하였다.

이번회의는 도 및 도교육청소속 교육기관, 사회단체주도 여성평생교육기관, 대학주도 평생교육기관등 총 2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는 위원 소개, 협의체 운영 설명, 안건심의(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이재우 위원장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도내 다양한 여성평생교육기관간의 정보교환과 조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여성사회교육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앞으로 도내 여성들에게 한 차원 높은 여성사회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 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남도, 11월 여성자원봉사왕에 김옥성씨 선정

- 11월 한 달 179시간 봉사 -

충청남도는 도내 여성자원봉사자중 11월 한 달 동안 가장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온 아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속 김옥성(金玉成, 68



세, 아산시 선장면 거주, 사진별도)씨를 ‘11월의 여성자원 봉사 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1월 여성자원봉사 왕으로 선발된 김옥성씨는 지난 1975년 새마을부녀회장을 맡아오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여 매주 일요일에 독거노인, 장애인가정에 밀반찬 전달, 한달에 3차례 목욕봉사 등을 해오고 있는 숨은 자원봉사자로 11월 한 달간 ▲삼봉사 등산로 쓰레기 수거 등 (10회 20시간) ▲청소 취약지역(마을회관, 관광지 도로변 및 지하도 등) 쓰레기 수거(8회 29시간) ▲재가 독거노인세대 밀반찬지원 및 집안청소 및 농가 일손 돕기(4회 28시간) ▲장애인 목욕도우미(3회 12시간) ▲장애인단체, 어려운 가정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9회 90시간) 등 한 달 동안 모두 34회에 걸쳐 179시간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씨는 자원봉사활동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데 뜻 밖에 11월 자원봉사 왕에 선발되어 쑥스럽다며, 앞으로도 힘이 닿는 그날까지 저를 필요로 하고 곳을 찾아 제 일처럼 열심히 자원봉사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여성부 / 탈 성매매여성 대상 '현장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여성부가 탈 성매매 여성 중 보호시설 입소를 희망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도 시범사업을 통해 탈 성매매를 돕는 자활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11월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설 입소를 희망하지 않고, 탈성매매 의지를 밝힌 부산 완월동과 인천 송의동 등의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현장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0월27일 완월동, 송의동 지역 여성들과 여성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탈성매매를 위한 자립지원을 요청했고, 현장활동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 둘 지역에 자활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접수된 상황 등에 따른 것이다.

이들 지역 성매매여성들은 여성부 담당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탈성매매 의지를 밝힌바 있다.

여성부는 기존에 시설 입소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자활서비스를 확대해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비입소 여성에게도 법률·의료·직업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업을 위해 관련부처, 해당지자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육아휴직자 퇴직 강요는 남녀차별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장관)는 A사가 출산 여사원에게 퇴직을 권유한 사건에 대해 남녀차별 결정을 내리고 해당 회사에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다.

개선위에 따르면 A사는 이 사건의 신청인인 S씨가 육아휴직중이던 지난 4월 ‘퇴직시 12개월분의 위로금을 주겠다’며 퇴직을 권유한데 이어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자 사무집기를 없애는 등 사실상 퇴직을 강요했다.

또 같은 회사의 B씨 또한 지난해 11월 출산 휴가를 마치고 출근했으나 3개월 가량 업무를 주지 않았으며, 퇴직을 거부하자 지난 2월 정기간사시 B씨의 거주지역과 전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냈다.

개선위는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이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례로, 남녀차별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는 지난 2001년 5월과 지난 7월에도 임신·출산과 관련한 신청 사건에 대해 남녀차별 결정을 내리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시정권고를 받을 경우 해당회사는 30일 이내에 권고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개선위에 보고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을 받아야 한다.

여성부는 “이번 결정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

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출산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강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0개 시범 사업 선정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0개 시범사업이 확정됐다.

여성부는 10월6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추진을 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예산 규모가 큰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사회복지 영역을 중심으로 암관리 정책 등 총 10개의 평가 대상 정책을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05부터 각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모범적인 국내 평가 사례를 축적하고 평가 지표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법무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9개 기관으로 이 중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가 남성인 현실에서 동 제도가 여성 피해자의 요구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암 관리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역할적·임상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질 높은 보건

서비스 제공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 결과는 여성부 내의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05년 여성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 모범사례로 보고되는 한편, 200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과 함께 각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될 예정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사업 과제》

1. **보건복지부**-암 관리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노동부**-재직자 직업훈련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한국여성개발원
3. **문광부**-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에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4. **농림부**-농업인력 육성정책의성별영향분석평가▷충남여성정책개발원
5. **과학기술부**-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전북대학교
6. **법무부**-수형자직업훈련의 성별영향분석평가▷한국직업능력개발원
7.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한국형사정책연구원
8. **서울특별시**-서울시 복지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한국여성개발원
9. **충청북도**-충청북도장애인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주성대학교
10. **전라북도**-전라북도 노인복지정책의성별영향분석평가▷전북여성발전연구원



참여정부 5급이상 여성공무원 32% 늘어

- 중앙인사위, 관리직 여성공무원 인명록 발간 -

참여정부 들어 중앙행정기관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지난 '국민의 정부' 말(2002.12.31)과 비교할 때 32% 증가하고, 여성 국장 및 과장 등 상위직 진출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발간한 '중앙행정기관 관리직 여성공무원 인명록'에 따르면 그 동안 양성채용목표제 등 적극적인 정부정책과 여성들의 공직도전에 힘입어 여성관리직은 총 887명에서 117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국장급은 19명에서 27명으로, 과장급은 133명에서 143명으로 증가했다.

장관 기용도 지난 정부의 경우 초대 내각에 2명이었던 데 반해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4명을 등용한 바 있고, 차관급도 지난 정부의 경우 통틀어 1명뿐이었으나, 참여정부는 환경부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현재까지 총 5명의 차관급을 배출하여 고위직에 어느 정부보다 여성을 국정파트너로 적극 기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급에는 현재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장, 김경임 주튀니지대사, 김애량 여성부 기획관리실장 등 3명이 재직 중이다.

특히, 여성채용에 소극적이었던 경제부처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기관에 여성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비서실이 11명→19명, 중앙인사위 3명→13명, 국무조정실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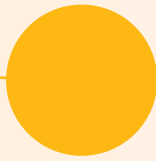
→10명, 행정자치부 33명→47명, 정보통신부 27명→37명, 건설교통부 5명→11명, 해양수산부 13명→20명, 관세청 3명→8명 (비교기준 : '02년말→'04.9월), 해양경찰청 등 4개 기관은 관리직 여성이 한 명도 없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 : 0→1명, 국무총리비서실 0→2명)

한편 여성들의 상위직 진출도 많아, 국장급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양지선 항생항암의약품과장이 의약품평가부장으로, 경찰청 김인옥 총경이 경무관으로 승진하였다.

과장급은 국무조정실 최초로 여성과장으로 김애령 여성청소년과장이, 내부승진으로 과장보직에 윤순희 물관리정책과장이 임명되었고, 관세청은 개방직위 자리에 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최영란 교역협력과장을, 행자부는 김경희 여성정책담당관을 승진과 함께 보직했다.

외교관의 경우 이미연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이 최초로 WTO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으로, 강경화 주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이 유엔인권위원회 여성지위원회 의장에 선임되었고, 강수연은 최초 주미대사관으로, 김경임 주튀니지대사는 외교관출신으로는 첫 여성대사로 임명되었다.

정부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2002년 5.5%수준에서 2006년까지 10%대로 끌어올리도록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6.4%을 달성했다.



동료직원이 자주 성희롱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함께하는 이야기”는 취업이나 노동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_편집자 주

Q. 안녕하세요. 저는 제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겪은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현재 나이는 20대 중반이고요, 서울에서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직원은 대략 2~30명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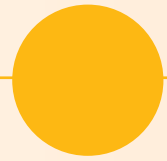
회사에서 여름에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는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곳 있답니다. 그래서 콘도를 이용하려고 신청을 했다더군요. 그녀는 이번 휴가때 저랑 친 오빠와 셋이서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회사직원들이 남자친구랑 가냐고 물어봐서 남자친구랑 그녀의 친오빠랑 셋이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주초에 회사 직원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한 남자직원이 이제는 끝이라는 등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그녀는 너무 자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냥 웃고 넘겼답니다. 근데 금요일에는 회사의 한 과장이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전해주면서 “처녀 맞아?”라는 말을 했다더군요. 그녀는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야기 했는데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참고로 그녀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옆에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상 그런 말을 들었을 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녁에 울면서 저한테 그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에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럴만한 근거가 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분이 심적으로 대단히 어려우시겠습니다. 용기있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주변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이후에 계속 직장을 다니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사건 정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과장이 했던 말은 명백히 성희롱입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에는 몸으로 하는 성희롱외에 말로 하는 성희롱이나 눈으로 하는 성희롱도 성희롱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안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장이 했던 말에 대해 편지를 쓰거나 면담을 요청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이때, 여자친구분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불쾌한 감정을 느꼈고, 어떤 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십시오.(이때 사본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가해남성은 피해여성에게 대해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고 상대방과 연애편계라고 이해하고 있거나 상대방도 좋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NO”라는 거부 의사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과장과 직원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식적인 관계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사장에게 성희롱사실을 공개하고, 성희롱사건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요구하십시오.(공개사과와 각서를 요구할 것인지, 징계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보십시오) 그리고 사업장내 다시는 이런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행할 것도 아울러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한 과장이 평소에도 그런 행동을 예사로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에게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으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도 있겠지만, 상급자가 평소에도 의식없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어를 쓸 때, 이것은 여자친구분 한사람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과장이 평소에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다면, 여직원회나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토의를 하고 성희롱에 대해 사과할 것을 함께 건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등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진정 등 권리구제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만약,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해고, 전직, 휴직 등)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와 가해자에 대해 정신적 · 물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750조)

1999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여성문제의 추이연구	7~12	정 책 개 발 부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흐름과 지자체 정책과제에 비추어 본 충남여성정책	7~12		
충남여성의 의식실태 조사	7~12		
'99 충남여성통계	7~12		

■ 세미나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주관부서
21세기 여성정책의 비전	'99. 9. 8	도청 대강당	300명	여성교육부
건강이 여성개발의 토대	'99. 9.2~11.9	시·군순회	2,000명	

2000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충남여성의 자원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1~12	정 책 개 발 부	
충남공직자 모성보호 휴가의 현실화 방안 연구	1~12		
충남여성농민 고용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연구	2~12		
충남지역 농촌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3~12		
충남여성 취업 길라잡이	9~11		핸드북
여성을 위한 직업모음	9~11		핸드북
충남지역 여대생 취업 길라잡이	9~11		핸드북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4. 27	본원 대강당	50	정 책 개 발 부	
충남지역 여대생 취업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	5. 12	청양대 대강당	250		
농촌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워크샵	6. 23	본원 대강당	44		
개원1주년 기념 「지방자치시대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	7. 14	본원 대강당	50		세미나
충남 농촌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워크샵	9. 22	본원 대강당	36		
충남여성의 지방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워크샵	10. 26	본원 대강당	20		

■ 교육사업

과 정 명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여성담당 공직자 과정	4. 11	본원 대강당	31	여성 교육 부	
보건담당 공직자 과정	5. 17	본원 대강당	28		
여성상담원 교육과정	5. 26	본원 대강당	37		
道 공무원교육원 강의	6. 1~6. 13	공무원교육원	600		총4회
여성단체지도자 과정	6.16, 6.21, 6.29	본원 대강당	135		총3회
사회교육강사 과정	7. 28	본원 대강당	44		
여성체육인 과정	8. 22~8. 24	천안상록유스호스텔	75		
여성정보화 과정	9. 25~9. 29	연기군청 정보화교육장	20		
대전시 공무원교육원 강의	9. 25~9. 29	대전시공무원교육원	120		총3회
여성단체실무자 과정	10.13, 10.19	본원 대강당	87		총2회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과정	10. 17~11. 24	논산, 공주, 홍성, 부여, 연기군	122		총5회
부모교육 강사과정 강의	10. 19~10. 20	예산군 가야관광호텔	250		
부부농업인 교육과정	12. 18~12. 19	농협공주교육원	24		
중국어교과와 결혼가정 문화강좌	12. 19~12. 20	부여청소년수련원	33		

2001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사업의 유기적 연계방안 연구	1~10	정 책 개 발 부	
여고생 직업의식 강화교육프로그램의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	5~12		
충남여성 IT 전문인력 개발 방안	5~12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	5~12		
충남 여성단체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	1~12		
충남 여성자원활동 수요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1~12		
충남 여성선도보호시설 개선방안 연구	1~12		
충남 보건소의 여성보건사업 현황과 과제	7~12		
여성노인인력의 복지자원화 방안 연구	1~10		
2001년 충남여성통계	7~12		
충남 여성의 정치의식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1~12	여 성 교 육 부	
충남지역 여성신지식농업인 발굴사례 연구	1~12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연구	1~12		
농촌지역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7~12		

* 개원이후 사업실적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 고
충청남도 성교육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샵	3. 9	본원 대강당	70	정책개발부	
농촌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워크샵	3. 29	본원 세미나실	67	"	
충남여성 의정참여 확대를 위한 워크샵	4. 17	본원 대강당	70	"	
성폭력 관련 담당자 워크샵	5. 10	본원 대강당	98	여성교육부	
개별화 교육 워크샵	6. 4	본원 대강당	200	"	
개원2주년 기념 세미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사회참여」	7. 6	본원 대강당	80	정책·교육부	공동수행
여학생·학부모 진로/직업의식 강화를 위한 camp	8. 6~ 8. 11	본원 대강당 및 숙박시설	90 (45명 2회)	정책개발부	교육인적자원부 용역사업
전국 여성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10. 22	본원 대강당	80	"	여성부 후원
여성건강증진사업 발전방향모색 워크샵	10. 26	세미나실	40	"	

■ 교육사업

과 정 명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과정	2. 1~2. 21	천안YMCA강당	20	여 성 교 육 부	
여성경찰리더십 향상 과정	2. 9	본원 대강당	55		
여성공직자 과정	3. 22, 3. 30	본원 대강당	75		총2회
여성자원봉사자 전문 교육	4. 10~11. 30	공주 아산 당진 예산 태안 연기보령	202		총7회
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	4. 18~5. 10	본원 대강당	42		
충남공무원교육원 교육	4. 23~5. 17	충남공무원교육원	210		총7회
여성자치대학	4. 25~10. 31	서산, 금산, 당진, 공주	259		총4회
여성·아동복지상담원 교육	6. 20	본원대강당	176		
여성창업 과정	7. 9~7. 13	본원대강당	50		
한부모가정 상담자원활동자 교육	7. 19~7. 20	본원대강당 및 숙박시설	40		
개별화교육 교원 연수	7. 23~8. 3	대전 서원초등학교	65		총2회
여성단체활동가 과정1기	8. 31	칠갑산자연휴양림	50		
여성단체활동가 과정2기	9. 7	보령정심원	150		
부모교육강사 양성 과정1기	9. 13~9. 15	본원대강당 및 숙박시설	45		
문화유적지 안내도우미 과정	11. 5	본원세미나실	21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11. 8	공주대 시청각실	70		
선거자원활동자 과정	11. 16	본원대강당	100		
여성정치외식 향상을 위한 워크샵	11. 16	본원대강당	100		
부모교육강사 양성 과정2기	11. 29~12. 1	본원 세미나실	20		
한부모가정 「청소년 지원과정」	12. 27~12. 28	본원 대강당 및 숙박시설	71		

2002년도 사업실적

■ 워크샵&세미나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역사속의 양성평등 제도 사례 연구	2~6	정책개발부	
충남 보육사업 활성화 및 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11		
충남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2~11		
충남 노인간병서비스 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	2~11		
충남여성 1366 네트워크 형성방안 연구	2~11		
충남 여성공무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연구	2~11		
충남여성 정보화 실태와 정보화 능력 향상방안 연구	2~12		
충남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와 과제	2~12		
충남 기출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구	2~12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여성농업인 정책비교 연구	2~12		
충남 행정의 성주류화 실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2~12		
충남 여성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12		
여성을 위한 가족생활관련 법률안내	2~10	여성교육부	
충남지역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조사연구	2~10		
충남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실태와 대처방안	2~12		
충남지역 친환경농가의 여성농업인 지원방안 연구	2~12		
농촌지역 여성 평생학습 지원방안 모색	2~12		

■ 워크샵&세미나

주제	일자	장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노인간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샵	5. 22	세미나실	40	정책개발부	
충남여성1366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워크샵	5. 24	세미나실	40	"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대처방안 모색 세미나	5. 31	대강당	57	여성교육부	
개원 3주년 기념 「충남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7. 23	대강당	80	정책개발부	
충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방안 모색 워크샵	9. 25	세미나실	31	"	
충남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고충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10. 31	홍성 홍동면사무소	42	여성교육부	

■ 교육사업

연구과제명	일자	장소	비고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 1차교육	2. 22	꽃박조직위	180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 2차교육	3. 20	꽃박조직위	190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 3차교육	4. 10	꽃박조직위	201
성교육 자원활동자 과정	5. 27-5. 31	대강당	42
한부모가정 소모임 운영을 위한 여성문화활동가 과정	6. 24-6. 28	세미나실	26
차세대여성지도자육성 여대생 캠프	7. 12-7. 13	대강당	62
공주시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를 위한 한마음 여름캠프	8. 1-2(1박2일)	대강당	40
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	8. 28-8. 30	세미나실	31
여성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과정	8. 29	공주농업기술센터	200
서산시 여성자원봉사학교	9. 2-9. 16	서산시청	112
여성공직자 과정 1,2,3차 교육	9. 30/10. 2/10. 4	대강당	18/27/27
2002실버인터넷 경진대회	예선 10. 7-11 본선 10. 18	사이버예선 청양대(본선)	646

2003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충남지역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 실태와 의식향상 방안 연구	03. 1~8	정책개발부	
충남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증진 방안 연구	03. 1~11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지원 방안 연구	03. 1~12		
충남 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소득증대 지원방안 연구	03. 1~12		
충남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03. 1~12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정책에 관한 연구	03. 1~11		
농가도우미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03. 1~12		
충남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03. 1~12		
2003년 충남여성통계	03. 1~12		
충남지역 여성소모임 활동사례 연구	03. 1~12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의 전문성 향상방안 연구	03. 1~12	여성교육부	
초등학교 성교육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03. 1~12		
충남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03. 1~12		

■ 용역사업

용역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어린이 인성교육원 자문용역 - 미래인재양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 -	02.10~03.4	정책개발부	충청남도
아시아의 농촌과 여성의 지위 - 충남도 여성농업인의 세력화 방안 -	03.2~04.3		지구마모토현
2003 여성신직업페스티벌 연구 용역	03.6~03.8		여성부
어린이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 충남을 빛낸 사람들 외 5개 주제 -	03.7~03.12		충청남도

■ 교육사업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비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조직 활동가 교육	2.10-14	세미나실	27	
양성평등의식 향상과정	3.25/26/27	대강당	74	
여성소자본 창업과정	4.28~5.2	세미나실	27	
2003주부인터넷 경진대회	예선 4.7~11 본선 4.25	청양대학	1,238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과정	6.9~7.1	세미나실	33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 여대생 캠프	6.27~28	대강당	51	
당진군 양성평등의식 향상과정	9.16(1차), 9.23(2차)	당진군 가정 복지회관	118	
2003 실버인터넷 경진대회	9.22~9.26, 10.15	청양대학	446	
여성참여마을 만들기	9. 30	천안대	207	
아산시 여성단체활동가 교육	11. 3~4(1차) 11. 5~6(2차)	세미나실	81	
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	11. 11~12	세미나실	30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연찬회	12. 3	대강당	62	

* 개원이후 사업실적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3. 12	천안시민회관 소강당	160	정책개발부	
충남여성농업인의 세력화 방안 모색 워크샵	6. 5	세미나실	35		
개원 4주년 기념 세미나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삶과 노인부양 문제	7. 7	대강당	200	여성교육부	
충남 재가 여성장애인 정책방향 모색 워크샵	7. 15	세미나실	26	정책개발부	
고령화 사회 여성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방안모색 워크샵	9. 25	세미나실	30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샵	10. 9	세미나실	10		
농가도우미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샵	12. 9	세미나실	10		

2004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농업정책 성주류화를 위한 충남여성농업인 생활양식 연구	'04. 1~10	정책연구실	
농촌관광미를 여성참여 현황과 정책과제	'04. 1~11		
이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04. 1~12		
충남 특수보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04. 1~12		
충남지역 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사업 방안 연구	'04. 1~12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노인 복지정책 비교연구	'04. 1~12		
충남 여성공무원 리더쉽 향상 방안 연구	'04. 1~12		
충남 여성 통리장의 역할 제고방안 연구	'04. 1~12		
충남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04. 1~12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고취교육 방안 연구	'04. 1~12		

■ 교육사업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비고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3. 10~12	본원 세미나실	26	
공무원 양성평등과정	4. 19~23(A조) 4. 26~30(B조)	본원 세미나실	81 (39명, 42명)	
2004주부인터넷경진대회	4. 19~4. 23(예선) 5. 7(본선)	사이버예선 청양대학(본선)	3,099	
성폭력전문상담원과정	5. 24~6. 4	본원 세미나실	42	
혼인귀화여성농업인 상담원 양성교육	5. 27~28	대강당 / 세미나실	43	
여성소자본 창업과정 교육	7. 12~27	대강당	59	
혼인귀화여성농업인 부부교육	8. 16~17	대강당	82	
서산시 여성단체지도자 교육	9. 2~3	세미나실	27	
여성부 평등가족실천 프로그램 교육 (결혼초기)	9. 9~10	세미나실	20	
2030우먼리더십 캠프	9. 21~22	대강당	43	
2004실버인터넷경진대회	10. 4~13(예선) 10. 22(본선)	사이버예선 청양대학교	496	
여성부평등가족실천 프로그램교육 (예비부부)	11. 1~2	세미나실	24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연찬회	11. 11	세미나실	30	
충남 혼인귀화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11. 18	예산 농촌진흥원	300	

* 개원이후 사업실적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 고
충남여성 통·리장 역할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2. 17	천안 쌍용 3동 사무소	7	정 책 연 구 실	
개원5주년 기념 한·일 여성노인정책 포럼	7. 07	선문대학교	120		
농촌관광마을 여성참여현황과 정책과제 모색 세미나	7. 09	세미나실	25		
충남 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사업방향 모색 워크샵	12. 20		20		
성별영향분석평가 워크샵 개최	12. 23		20		

■ 용역사업

용역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 고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04. 08~04. 12	정책연구실	여성부
아동기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04. 11~05. 05	정책연구실	여성부